

[22] 열녀 정씨부인

정씨는 1835년에 출생하여 17세에 유씨 가문으로 출가하였다.

정씨의 남편은 유 영근으로 유 언의 5세 손이었다.

부인 정씨는 어려서부터 부모와 규범이 남보다 월등하여 언행이 바르고 고왔다. 또 현숙하여 시부모를 섬기는 일이나 동기간의 우애가 각별하였다. 언제나 시부모를 즐겁게 봉양하였으며 부모의 뜻이 아니면 행하지 않고, 숙단하여 처리하지 않으며 항시 시부모의 곁에서 시중을 들어 시부모의 칭찬을 모두 받았다. 정씨는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을 정도로 행복했다.

그러나 이런 행복도 잠깐인지 그녀의 남편 유 영근은 몃쓸 병으로 인해 그만 자리에 눕게 되었다.

정씨가 시집온지 2년이 되던 어느 날 불행히도 온 정성을 다하여 남편을 돌 본 보람도 없이 남편을 병으로 잃게 되었다. 시부모님도 슬픔이 컸겠지만 정씨 부인의 슬픔은 그보다 더 큰 뼈를 깎아내는 것 같은 아픔이었다. 그러나 시부모님의 앞에서는 조금도 슬퍼함을 드러내지 않고 온화한 빛으로 부모님을 위로하였다.

그 때 나이 19세임에도 불구하고 정절을 지키기로 결심하고 조카인 덕기를 양자로 삼아 양육하는 즐거움으로 살았다. 허나 집안 사정이 몃시 빈곤하여 조석으로 끼니 걱정을 하는 처지였으나 항시 즐거운 낯으로 길쌈과 바느질에 열중하여 생계를 이었다. 자신은 보리죽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시부모님께는 항상 백반을 마련해 드리는 지성의 나날을 보냈다.

그 후 장성한 아들 덕기가 벼슬에 올라 손자를 거느리며 천수를 누렸다.

마음가짐이 착하면 반드시 복을 받아 영화를 누리게 된다는 좋은 사례이다.

[23] 열녀 창원 황씨부인

가까이에 있는 설화산에 안개가 자욱히 끼고 목탁 소리라도 들려올 때엔 신비스럽마저 느끼게 된다. 푸르른 소나무가 울창함도 그러하거나와 험하지는 않지만 옛 자연의 맛을 느낄 수 있음도 그렇다. 오래된 옛 이야기도 세월이 흐름에 따라 고건의 값도 더 하지만 그들의 사상 또한 그 값이 더 한듯 싶다. 지금부터 내가 본받고자하는 한 여인네의 덕치 정신을 적으려 한다.

이조 중엽 때이다. 가난한 집안이었지만 청렴하고 곧은 선비의 자식으로 백 년이란 소년이 있었다. 가훈을 세우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길은 학업에 충실하여 과거에 급제 금의환향하는 길밖에 없다는 결심한 소년은 결심 끝에 고향을 떠나 절로 공부하러 가야 했다. 설화산에 입사한 백 년은 다른 양반 자제와 똑같지는 않았다. 백 년이 가난한 사람인지라 잡일을 해 주며 밥을 얻어 먹었으며 밤이 되야 검게 그을음 나는 등잔 아래서 책장을 넘겨가며 어렵게 공부했다. 때론 집으로 달려가고 싶었다. 그럴 때마다 부처님 앞에 찾아가 마음을 정돈하고 현실생활에 충실하면서 계속해서 공부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산에 나무를 하러 갔을 때이다. 틈이 없는 터라 빌린 책을 볼새없이 먼지만 쌓여가고 있음을 알고 나무하러 가서 보아야겠다는 마음으로 나무를 베어놓고 쉬는동안 책을 읽을 욕심에서 책을 폈다. 책에 정신을 쏟다 보니 장작 패는 일도 잊은 채 날이 어두어져 가고 말았다. 뒤늦게 같이 일하는 중의 부름에 정신이 든 백년, 통나무 채로 메고 내려올 수 밖에 없었다. 주지스님께 불려갔다. 무슨 사람이 장작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무책임하냐며 잔뜩 혼났다. 말대꾸를 할 처지도 아닌지라 백년은 고개만 떨구고 앉아 있기만 했다. 스님은 평상시에 백년을 눈여겨 보고 있었다.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으로 짐작하고 다른 불제자들보다 어려운 훈련과 공부를 시켰다.

백년은 스님의 타이름 속에 깨달은 것이라도 있는 듯 말이 없었다. 어느덧 산에 들어온 지 3년이 되어갔고 백년의 글공부도 보름에 달이 차듯 여물대로 여물어 과거 시험에 응시하게 되었다. 한양 길을 가는 동안에는 백년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발길을 옮겼다. 문과 시험은 꽤 힘들었다. 시험은 끝났고 결과는 당연하다는 듯이 백년에게로, 고생한 보람이 있어 백년은 스님께 감사의 절을 올린 뒤 고향길에 뜻한 대로 금의환향했다. 고향에선 벌써 알고 초가삼간 좁은 마당에 축하객들이 껍차 있었다. 부모님들의 기쁨 또한 백년과 일치했다. 흘러 내리는 눈물은 의관을 축축히 적셨다. 가난에 찌들은 집안에 머느리로 들어 왔던 김씨는 하얏던 손은 거칠대로 거칠어져 남정네 손과도 같았다. 백년은 끝까지 고생을 견디어준 아

내가 무척이나 고마웠다. 하지만 여인네의 가냘픔은 너무나도 견디다 못해 병을 얻어 자리에 누워있는지라 백년의 금의환향의 기쁨은 일시적인데에 지나지 않았다. 백년에게 딸이 하나 있었는데 어린 것이 얼마 시종 드느라 여간 애쓰는게 아니었다. 약도 제대로 써보지 못한 채 아이의 울음소리와 함께 상여에 실려야 했다. 백년의 아픈 마음은 이루말할 수 없었으나 아이를 위해서라도 백년은 새로 아내를 맞이해야 했다. 초혼이 아닌지라 제대로 식도 올리지 못한 채 양가 집안에서만 약소히 인사를 올린 뒤 황씨를 집에 데려왔다. 동네 아낙네들의 비웃음소리와 야유소리가 작은 가마 속에서 황씨는 들었다. 남들이 비웃는 의붓 어머니 노릇을 황씨는 아무 말 없이 받아들였다. 창원 황씨는 크지도 작지도 않았다. 발그레한 볼은 부잣집 규수로 편히 지냈다는 걸 말해주는 것 같았다.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겠다는 뜻도 있었지만 후처라 해서 멀리 당할 수는 없는 일이고 전처가 살아 있다면 몰라도 죽어 없는 터 전처든 후처든 남편은 남편, 시부모는 시부모인 것이다. 전처 자식에게도 친 자식 못지않게 돌보았다. 황씨가 아들을 낳았을 때는 이웃집 사람들이 와주지 않았으므로 혼자서 산후처리까지 해야했고 아이를 키울때도 모두 혼자 해야만 했다. 큰 아들과 딸을 차별두지 않았다. 아들도 누님으로 대했고 딸도 동생으로 우애가 좋았다. 이웃 사람들에게 차츰 좋게 인식되었다. 남편은 국가 일에만 몰두하고 가정 일에는 무심한 정도로 소홀했다. 청렴한 선비야말로 진정 훌륭한 인물이란 걸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남편의 소홀함에 어찌할 수 없는 아내로써 눈물도 많이 흘렸다.

어느 날 시아버님께서 이름 모를 병으로 자리에 눕게 되었다. 약 다려 드릴 돈은 고사하고 흰 죽 쌀 쌀도 없었다. 아들과 딸들을 붙들고 얼마간 울다가 황씨는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천지신명께 간절히 비는 일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산에 올라가 백일기도를 올리기 시작했다. 천정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보고만 있을 수 없었는지 몇 첩의 약과 쌀을 보내주었다. 황씨는 정성스럽게 약을 다려 드렸지만 효험이 없었다.

밤마다 황씨는 정성스럽게 약을 다려 드렸지만 효험이 없었다. 밤마다 황씨는 간절히 기도를 드렸다. 목숨을 바꿀 수만 있다면 바꾸겠다는 굳은 마음으로, 백일이 다되도록 시아버님의 병세는 더욱 악화되어 갔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더니 황씨의 정성이 하늘에 닿았는지 백일이 되던 날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떠 보니 앞사귀도 푸릇한 산삼 두 개가 있었다. 황씨의 눈에서는 구슬같은 감사의 눈물이 흘렀고 황씨는 날듯이 산을 내려와 정성을 들여 약을 끓여 시아버지의 입에 넣자마자 얼굴색이 붉어지더니 원기가 회복되기 시작, 며칠내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이런 소문은 온 동네에 퍼졌다. 열녀 효부라고 칭송하기 시작했다. 비웃던 이웃까지도, 뒤늦게 백년이 알게 되었다.

국사일에만 열중하다보니 아버님이 누워있다고 걱정만 할 뿐이었으니 남보다 늦게 안 것이다. 백년은 아내의 두 손을 잡고 감사의 표시를 하여 위로해 주었다. 황씨는 더욱 더 부모님 모시기에 정성을 쏟았다. 그동안 황씨는 둘째 아들을 낳았고 큰 아들은 서당에서도 효성질고 명석한 아이로 이름나 있었다. 백년이 25살되던 해로 충청 감사가 되었다. 그만한 계급에도 집은 옛날과 변함없었다. 재물에 마음을 뒀다면야 큰 기와집에 호화스럽게 살겠지만 백년은 그렇지 않았다. 비가 와서 천정에서 비가 새도 아랑곳 하지 않을 정도였다.

집에서 있는 날도 책 읽기에 바빴고 그렇지 않으면 입찰했는데 의복에 풀먹일 쌀이 없어 천정에서 한 두 되 꾸어야 함을 아는지 모르는지 황씨는 늙어가고 시부모님도 돌아가시고 없는지라 늙은 몸이 일 할 수도 없고 난감할 때가 많았다. 황씨는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아들 교육은 엄하게 시켰다. 아들들도 뜻을 어기지 않고 연달아 형제가 급제를 해 황씨의 마음을 기쁘게 해 주었다. 백년이 청렴하고 지덕이 뛰어나다는 건 임금님도 아시고 있어 마침내 높은 관직에 올렸지만 집안살림은 여전했고 황씨는 급기야 자리에 눕게되었다. 백년에게 내색도 못하고 시름시름 죽어갔다. 백년이 정사를 마치고 집에 와 보니 집안은 울음바다였다. 그동안 아이들의 효성에도 아랑곳없이 사경을 헤매다 마지막까지 딸을 걱정했고 백년을 걱정하다 저승으로 가고 말았다고 동네 사람들이 백년에게 알려주었다.

그동안 가정에 너무 무심했던 백년은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두 번째로 아내의 상여를 따라야 했다.

나라에서는 이런 일을 알 턱이 없었다. 회의가 있으니 입궐하라는 분부가 내려왔고 백년은 따랐다. 회의중이었다. 시종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눈을 감고 있는 백년을 마침내 임금께서 불러 물었다. 백년은 아내의 상을 당한 사람이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며 머리를 조아렸다. 임금님께서는 깜짝 놀랐다. 청렴한 인물임은 일찌기 듣고 있었으나 이런 정도인 줄은 정작 몰랐다. 임금은 백년을 따로 불러 그동안의 집안 내력이라든가 황씨에 대해 자

세히 물려 보고는 황씨 부인에게 정경부인이란 칭호와 함께 비석을 세워 모범된 아내로서 효성깊은 며느리로서의 덕망을 길이 빛내 후세에 전하도록 했고 백년에게도 친히 호를 내렸다. 설화산에서 공부했다고 해서 "설봉"이라고

그 뒤에 황씨는 지금의 온양읍 법곡리에 유택을 만들었고 백년은 죽는 날까지 나라에 충성된 신하로써 그 일생을 보냈다.

훌륭한 인물의 뒤에는 반드시 그에 못지 않은 훌륭한 내조가 뒷받침이 된다. 찢어질 듯 가난한 살림살이 속에서도 오직 자식과 남편만을 위해 죽는 날까지 바느질감을 놓지 못했던 정경부인 황씨, 지금도 설화산 곳곳에서 부는 바람조차 황씨의 넋을 위로하듯 속삭이고 그녀의 거룩한 영혼이 메아리 되어 울려 퍼진다.

[24] 강 태 철(姜泰轍)

자는 성하(聖夏)요, 호는 오현(五軒)이며, 본관은 진주이니 은열공(殷烈公) 민첨(民瞻)의 후손이다. 편모를 지극한 효성으로 섬겼고, 집안이 가난하였으나, 근검하고 농사에 힘써 맛있는 음식과 약석을 한 번도 어긋나는 일이 없었다. 그리고 두 아우와 더불어 우애가 매우 돈독하였으며, 곡식과 재물을 내어 빈궁한 사람들을 구휼했다. 모친상을 당하여 너무나 슬퍼하다가 건강이 쇠약해 졌으며, 묘소에 여막을 짓고 시묘했다. 포상추천을 받았다.

[25] 고 의 급(高義及)

효행이 두터워 복호(復戶)를 주어서 부역과 세금을 면제하였다.

[26] 권 대 평(權大平)

효행으로 유명했다. 현종 10년(1669년)에 왕이 대비를 모시고, 왕비와 함께 온양온천에 행행하였다가 효행사실을 알고, 의금보 도사를 증직했다.

[27] 권 상 룡(權祥龍)

권대평(權大平)의 아들인데, 효행이 뛰어나, 좌랑을 증직했다.

[28] 권 상 호(權祥虎)

상룡(祥龍)의 아우인데, 효행이 뛰어나, 지평을 증직했다.

[29] 김 남 찬(金南燦)

자는 자명(子明)이요, 본관은 김해이며, 충간공(忠簡公) 보(普)의 후손으로, 장사랑(將仕郎)이 되었다. 효행이 출전하여, 아버지를 정성껏 섬겼다. 부친의 병환에 배를 구하기 위하여 눈길을 걸어 배나무 아래를 지나가는데, 싱싱한 배가 저절로 떨어져서 갖다 드렸다. 그리고 추운 겨울에 미나리를 잡수시고자 하므로, 눈이 덮인 시냇가에 나가 울면서 미나리를 구하려고 했는데, 때마침 길게 자란 미나리를 발견하여, 가지고 와서 공양했다. 사람들은 그의 효성에 감응한 것이라고 칭찬했다.

[30] 김 영 렬(金永烈)

자는 중습(仲習)이요, 본관은 언양이며, 위열공(威烈公) 취려(就礪)의 후손이다. 효성이 지극하여, 집안이 몹시 가난했으나, 온갖 좋은 약물과 음식으로 정성을 극진히 하였다. 모친의 병환이 위독하매, 대신 병을 알게 해 달라고 하늘에 기도하고, 대변의 맛을 보며, 손가락을 끊어 희생시키고자 하였다. 꿈에 한 노인이 와서 말하기를 "명일에 반드시 영약을 얻으리라."하였다. 과연, 중 한사람이 산삼을 가지고 찾아왔으므로 달여서 올렸더니 효험을 얻어 1

년동안 더 수명을 연장시켰다. 암행어사가 이 사실을 알고 천거하여 조정에 아뢰고 포상하기에 이르렀다.

[31] 박 천 수(朴天籌)

자는 운재(運載)요, 호는 설계(雪溪)에, 본관은 함양이니, 절의(節儀)의 권(權)의 후손이다. 부친의 병환에 대변의 맛을 보면서 손가락을 끊어 피를 약으로 바쳤다. 부친상을 당하여 죽을 마시면서 시묘하였고, 3년동안을 하루와 같이 아침 저녁으로 호곡하였다. 그리고 모친상을 당했을 때도 전례대로 행하였으며, 사람들은 그의 묘소를 시묘동이라고 일컫었다.

[32] 상 남(相男)

효행으로 정례를 세웠다.

[33] 안 정 우(安鼎禹)

초명(初名)은 식(湜)이요, 자는 경구(敬九)이며, 본관은 순흥이니, 선정(先正) 유(裕)의 후손이다. 지극한 효성으로 양친을 봉양하였고, 부친의 병환에 대변을 맛보았다. 자제들을 가르치되 덕행을 근본으로 하고, 문예를 끝으로 하였으며, 영재교육을 즐기고 가난한 사람을 구휼하며, 의리지키기를 좋아했다.

[34] 오 두 웅(吳斗雄)

자는 계명(季明)이요, 호는 은곡(隱谷)이며, 본관은 해주이니, 응교(應敎) 백천당(白千堂) 숙의 아들이다. 효행이 특히 뛰어나, 지평에 추증되고, 장려를 명했다. 문정공 도암 이재가 묘갈문을 짓고, 문정공 오재순이 묘표문을 지었으며, 문순공 남당 한원진이 묘지를 지었다.

[35] 오 희 문(吳希文)

자는 비연(斐然)이요, 본관은 해주이며, 좌찬성(左贊成) 경민(景閔)의 아들인데, 벼슬은 감역(監役)을 지냈다. 70세에 친상을 당하여 묘소아래 여막을 짓고 거처하며, 3년동안 죽을 마시면서 애통하였다. 청음 김상헌이 일찌기 말하기를, "사업이나 문장은 이루지 못했으나, 집안에서의 행실은 순수하고 돈독하다."고 하였다. 영의정을 추증했고, 묘는 경기도 광주의 토당리에 있는데, 후손 부제학 명신이 묘표를 지었다.

[36] 유 세 권(柳世權)

효행으로 좌랑을 증직했다.

[37] 윤 영 선(尹瑛善)

자는 경동(敬冬)이요, 호는 석계이며, 본관은 해평이니, 오음 두수의 후손이다. 천성이 지극히 효성스러웠다. 5세에 모친을 여의고 어린 나이에 사모하여 울부짖었다. 홀로 계신 부친께 지성으로 공양하였으며, 부친의 병이 위독하자 손가락을 깨물어 입에 피를 흘려 넣었고, 부친상에 예법에 따라 장례를 치르고, 3년동안 시묘하면서 새벽과 저녁에 성묘하여 무릎을 꿇었던 자리에 웅덩이를 이루었다. 자선사업으로 은혜를 베풀어 온 고을 사람들이 비석을 세워 포양했다.

[38] 윤 현(尹倪)

호는 양심당(養心堂)이며, 효행으로 증직하였다.

[39] 이 건 주(李建冑)

자는 계탁(季卓)이요, 호는 병수(病叟)이며, 유현(儒賢) 간(柬)의 손자이다. 경학에 뛰어나서 백의로 천거를 받아 입시하였고, 감염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으며, 여러 차례 부름을 받아 입시하였다. 벼슬은 광흥창수에 그쳤으나 아버지 섬기기에 효성이 지극하여 여러 차례 고을 수령으로부터 천거되어 효자 정문을 내렸다.

[40] 이 덕 로(李德老)

자는 득보(得甫)요, 본관은 한산이며, 절의(節義) 계(稽)의 현손이다. 부친의 병환에 삼일 동안 추운 겨울날씨를 무릎쓰고 하늘에 기도하여 유용탕을 감득해서 올리니, 효험을 얻었다. 계모의 병환이 위독할때 벌이 품안으로 날아 들어오므로 살펴보니, 벽 사이에 벌집이 있었다. 거기서 꿀을 얻어 계모에게 드렸더니, 효험이 있었다. 그후에 또 병환이 들었는데, 큰 뱀이 방안으로 떨어져 내려와 환약을 토해 냈다. 전날 밤 꿈에 가르침을 받은 바 있으므로 그 환약에 물에 타서 복용해서 회생했다. 한 고을이 포상을 추천했다.

[41] 임 태 춘(任泰春) (1751~?)

자는 자인(子仁)이요, 호는 농옹(農翁)이며 명신(名臣) 홍망(弘望)의 후손이다. 순조때에 효행으로 효자 정려(旌閭)를 명하고, 이조참판을 증직했다. 문집이 있다.

[42] 임 희 철(任熙喆)

자는 원집(元集)이요, 호는 탄은(灘隱)이며, 본관은 장흥이니, 분무공신 육의 후손이다. 일찌기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조모의 품에서 자랐다. 천성이 효성스러워 맛있는 음식으로 지극한 정성을 다하여 공양했다. 조모의 병환에 대변에 맛을 보면서 복두칠성을 우러러 빌었다. 병환이 위급 해지자 손가락을 끊어 피를 입에 흘려 넣어서 소생시켰으나, 3일만에 운명했다. 장례와 제례를 예법에 따라 치렀으며, 이 사실의 향유와 도백이 천거했다.

[43] 임 달 운(林達運)

자는 대규요, 본관은 평택이며, 학행(學行)으로 유명한 수겸(守謙)의 후손이다. 천성이 효도스럽고, 우애하였으며, 모친이 이질에 걸려 위중하므로 울면서 대변의 맛을 보았고, 얼음을 깨어 물고기를 구해다 드렸다. 병환이 매우 위중하므로 손가락을 끊어 피를 흘려 넣어 소생시켰으나, 3일만에 운명했다. 슬픔에 과하여 건강을 손상했으며, 예법을 너무 극진히 하였다. 향유와 도백이 이 사실을 천거했다.

[44] 정 신(鄭信)

사노(私奴)로서 효행이 지극하므로, 효자 정례를 세웠다.

[45] 김익생(金益生)<李朝 ?~?>

號는 省齊, 本貫은 金海, 金寧郡 始興의 八世孫, 松庵公 諱 秩의 子이다. 13歲 때에 親患이 있게되어 오랫동안 病苦중 잉어고기를 자시기를 願했으나 季節이 冬至선달 酷寒인지라 얼음이 광광얼어 구할 도리가 막연하던中 꿈에 天使가 말하기를 孝誠이 至極하다며 연못을 일러주면서 가보라는 것이었다. 希望에 차 새벽 4時에 그곳에 당도하니 얼음장이 갈라지며 길이 두자 세치되는 잉어가 뛰어나와 잡아가지고 집에 와서 精誠껏 과드린 즉 病勢는 好轉되어 가는 중 또 배가 자시고 싶다하여 탈해寺에 가서 구하러 할때 大虎가 나타나 등에 얹혀 순식간에 다녀올 수 있었다. 여러 사람이 孝誠이 至極함을 나라에 상소하여 큰 賞을 받

고 孝子로 선정되어 牙山郡 道高面 道山里에 旌門을 建立하게 되었다. 中樞 府使를 거쳐 太宗朝에 慶州府尹이 되어 賓賢樓를 지어서 講武所로 使用하였는데 安平大君 瑬이 扁額을 쓰고 鄭麟趾가 記文을 지었다. 治績이 있었고 벼슬은 禮曹判書에 이르렀다. <朝鮮 輿勝覽>

[46] 김 중(金琮)<李朝 ?~? >

字는 汝宗, 本貫은 金海, 功臣인 胤의 孫子이다. 明宗朝에 司馬試에 合格하고 孝行이 卓異하였으므로, 孝陵 參奉으로 薦擧되어 除授받았다. <朝鮮 輿勝覽>

[47] 이덕민(李德敏)<李朝 ?~? >

字는 秀道, 號는 松坡, 本貫은 龍仁, 溫陽郡 二北面 白岩里(牙山郡 峙面 白岩里)에 卜居하였는데 天性이 孝誠스럽고 友愛가 있었으며 自身이 遺腹子로 태어나서 父親의 얼굴을 알지못함을 恒常 痛恨하여 母親의 三年喪을 마치고 父親의 喪服을 追加하여 三年을 더 입었다. 伯兄 思敏의 居處가 稍遠하였는데 매양 찾아가 뵈올 때는 門外에 버려두고 달려 들어갔다고 한다. 조용히 義理를 研究하고 오로지 自己의 學問을 위하여 힘썼으며 洪晩奎과 洪松谷과 더불어 道義로써 交遊하며 往來하였다. 松坡가 卒하니 處士 趙祖禹가 哭하며 다음과 같이 詩를 지었다.

어머님 喪期를 마친 後, 슬픔을 因하여 追服을 했고, (齊衰喪後因哀稅) 兄님의 집 앞에서 는 門外에 버리고 달려갔다네, (伯氏堂前去杖).

後에 牙山 仁山書院에 配亭되었다. <新定牙州誌>

[48] 조이후(趙爾後)<李朝 ?~? >

號는 梅谷, 時菴 趙相禹의 맏아들이다. 顯宗이 溫陽溫泉에 臨幸하였을때 領議政 李景奭이 어질고 孝誠스러움이 능히 그 아버지를 이었다하여 後車에 실고 陳達하여 書 官을 拜受하였다. 그는 後에 敦寧府事까지 하였다. <輿地圖書(溫陽郡)>

[49] 조이중(趙爾重)<李朝 ?~? >

時菴 相禹의 둘째 아들이다. 顯宗이 溫陽溫泉에 臨幸하였을때 領議政 李景奭이 어질고 孝誠스러움이 능히 그 아버지를 이었다하여 그 兄 爾後와 함께 後車에 실고 陳達하여 벼슬을 拜受하였다. 벼슬이 縣監에 이르렀다. <輿地圖書(溫陽郡)>

[50] 조명국(趙鳴國)<李朝 ?~? >

時菴 相禹의 孫子이다. 肅宗時 司馬試에 及第하여 벼슬길에 올라 家學으로 나이 칠십에 벼슬에서 물러났다. 그는 孝誠이 至極하고 清廉潔白하여 士林의 孝廉으로 朝廷에 알려졌다. <輿地圖書(溫陽郡)>

[51] 조명주(趙鳴周)<李朝 ?~? >

時菴 相禹의 孫子로 梅谷 爾後의 아들이다. 司馬試에 及第하여 벼슬이 參奉에 이르렀다. 學行이 있고 父母에 대한 孝誠이 至極하였다. <輿地圖書(溫陽郡)>

[52] 강린수(姜麟壽)<李朝 ?~? >

李朝 宣祖때의 사람으로 벼슬은 參奉에 이르렀다. 孝誠이 至極하였으며 父母가 世上을 떠나자 廬幕에서 3年을 지냈다. 宣祖 38년(1605)에 旌閭를 세웠다.

<輿地圖書(溫陽郡)>

[53] 강봉수(姜鳳壽)<李朝 ?~? >

李朝 宣祖때의 사람으로 벼슬은 通訓大夫 尙衣院正에 이르렀다. 孝誠이 至極하여 崇禎 丙午 6月 牙山郡 排芳面 新興里에 旌閭를 세우고 禮曹參判을 追贈하였다.

<輿地圖書(溫陽郡)>

[54] 윤취은(尹就殷)<李朝 ?~? >

李朝 宣祖때의 孝子로 牙山縣 사람이었다. 아버지를 至極한 孝誠으로 섬기었다. 宣祖時에 暗行御史가 啓聞하여 特別히 參奉에 除授하였다.<輿地圖書(牙山縣)>

[55] 권 유(權愈)<李朝 ?~? >

李朝 宣祖때의 孝子로 牙山縣 사람이었다. 孝誠이 至極하여 朝廷에서 이 사실을 알고 命旌하여 旌門을 세우고 左郎을 追贈하였다. 지금은 그 자취를 찾을 길이 없다.

<輿地圖書(牙山縣)>

[56] 박성오(朴省吾)<李朝 ?~? >

字는 子安, 本貫은 咸陽, 權의 玄孫이다. 벼슬은 嘉善大夫 副摠管에 이르고, 본디 至行이 있어, 父親이 疽를 앓고 있었는데 醫員이 말하기를 두꺼비가 藥이라고 일러 주었다. 마침 그때가 섣달이었으므로 눈이 쌓인 뜰에 나가 부르짖어 울고 있었는데, 한 마리의 두꺼비가 뛰어 나왔다. 이것을 藥으로 써서 즉시 效驗을 보았는데, 사람들이 그의 孝道에 感應된 것이라고 칭찬하였다. 仁祖朝에 靖社·振武의 兩勳에 策錄되었고, 丙子胡亂에 南漢山城으로 扈駕하였다. <朝鮮 輿勝覽>

[57] 황의길(黃義吉)<李朝 ?~? >

李朝 仁祖때의 孝子로 新昌縣 사람이었다. 丙子胡亂때에 그의 어머니가 물에 빠져 죽으니 어머니를 따라 그도 물에 빠져 죽었다. 그의 孝心이 至極하여 仁祖時에 旌閭를 세웠다. 旌閭는 牙山郡 新昌面 得山里에 있다.<輿地圖書(新昌縣)>

[58] 임소사(林召史)<李朝 ?~? >

李朝 仁祖때의 烈女로 牙山縣에 살았던 李之雄의 妻이었다. 仁祖 15年(1637) 丁丑年亂離에 敵軍의 逼迫을 당하여 自殺하였다. 仁祖때에 旌閭를 세웠다. 지금은 그 자취를 찾을 길이 없다. <輿地圖書(牙山縣)>

[59] 봉 춘(奉春)<李朝 ?~? >

李朝時代의 良家出身烈女로 新昌縣店人의 妻이었다. 丙子胡亂때에 男便은 敵軍에게 사로 잡히고 敵軍이 劫奪하려고 하므로 죽기로써 拒絕하다가 被殺되었다. 仁祖朝에 新昌縣 大東面 苧洞리에 旌閭를 세웠는데 現在 牙山郡 新昌面 黃山里에 있다. <輿地圖書(新昌縣)>

[60] 막 계(莫介)<李朝 ?~?>

李朝 仁祖때의 烈女로 牙山縣에 살았던 金丕福의 妻이었다. 仁祖 15年(1637) 丁丑年亂離에 節介를 온전히 지키어 旌閭를 세웠다. 지금은 그 자취를 찾을 길이 없다. <輿地圖書(牙山縣)>

[61] 김효일(金孝一)<李朝 ?~? >

李朝 孝宗때의 孝子로 牙山縣 사람이었다. 어머니의 病이 危篤하자 손가락을 잘라서 그

피를 흘려 넣어 蘇生시키었다. 뒤에 어머니의 喪을 당하여 지나치게 슬퍼하다가 世上을 떠났다.

顯宗때에 義禁府都事를 追贈하였다.<輿地圖書(牙山縣)>

[62] 홍 철(洪)<李朝 ?~? >

字는 子高, 本貫은 南陽, 晩全 可臣의 아들이다. 誠孝가 出天하여 禮로써 父母를 섬기었고 7年동안 侍病하면서 옷의 띠를 풀지 않았다. 나라에서 參奉을 薦授했으나 나아가지 않았으며 顯宗이 溫陽溫泉에 行幸하였을때 이 事實을 듣고 戶曹佐郎을 追贈하였다. <新定牙州誌>

[63] 윤대형(尹大亨)<李朝 ?~?>

坡山府院君 之任의 五代孫이다. 顯宗 6年(1665) 王이 溫陽溫泉에 臨幸하였을 때에 地方의 많은 선비가 篤行純孝로 薦報하고 方伯이 朝廷에 알리어 特別히 賜職 參奉을 除授하였다. <輿地圖書(溫陽郡)>

[64] 불 관(佛寬)<李朝 ?~? >

李朝 肅宗때의 烈女로 牙山縣에 살았던 李振緒의 妻이었다. 나의 열여섯살에 男便이 世上을 떠나자 三年을 守墓하고 媳母를 至極하게 섬기며 守節하였다. 肅宗때에 旌閭를 세웠다. 지금은 그 자취를 찾을 길이 없다. <輿地圖書(牙山縣)>

[65] 박뢰공(朴雷公)<李朝 ?~? >

李朝 肅宗때의 孝子로 牙山縣 사람이었다. 孝誠이 出天하여 肅宗 40年(1714)에 旌閭를 세우고 그의 役과 딸의 役을 免除하였다. <輿地圖書(牙山縣)>

[66] 심서웅(沈瑞雄)<李朝 ?~? >

本貫은 靑松, 安孝公 溫의 後裔이다. 溫陽郡 南上面(現 牙山郡 松岳面 地域) 石隅里에서 살았는데 孝童이라는 稱讚을 들었다. 父親이 病들어 썩고기와 물고기를 먹고 싶어 하므로 걱정하는 중인데 갑자기 썩이 房안으로 날아 들어왔고 다리(橋)위로 뛰어오르는 異常한 일이 나타났다. 一鄉의 사람들이 繡衣(暗行御史)에게 數次 이 事實을 말하여 肅宗癸巳年(1713)에 給復되었다. <新定牙州誌>

[67] 이제빈(李悌彬)<英祖48年(1772)~顯宗3年(1837)>

本貫은 德水, 弘茂의 玄孫, 英祖 48年(1772)에 牙山에서 태어났다. 不過 나이 5살의 어린 아이로 토를 달아 척척 읽는 秀才였으나, 아버지를 잃은 후에는 家勢가 기울어지기 始作하여 어머니를 흡족하게 모시지 못함을 항상 고민하던 차에 어머니가 돌아가실때 스스로 손가락을 끊어 피를 드러 반나절이나 더 살아계시게 하였으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같이 어머니의 무덤을 살피니, 그 孝誠이 극진하여 世間の 師表로 삼고자 顯忠祠에 旌閭를 세웠다. 純祖 1年(1800) 30才때 武科에 올라 慶尙左兵使에 이르렀고, 憲宗 3年(1837) 66才때 別世하였다. <新定牙州誌...등>

[68] 흘 계(忽介)<李朝 ?~? >

李朝 英祖때의 牙山縣 官婢身分의 烈女로 李仁納의 妻이었다. 나이 열여덟살에 男便이 世上을 떠나자 넘보는 사람이 있었으나 끝내 쫓지 않고 머리를 깎고 貞節을 온전히 하였다. 英祖 5年(1729)에 旌閭를 세웠다. <輿地圖書(牙山縣)>

[69] 열녀윤씨(烈女尹氏)<李朝 ?~? >

將領 左謙의 딸, 李朝時代 溫陽郡에 살았던 李元彬의 妻이었다. 英祖때에 孝誠이 至極해

烈女라는 事實이 朝廷에 알려져 復戶되었다. <輿地圖書(溫陽郡)>

[70] 강운상(姜雲祥)<李朝 ?~? >

字는 應澤, 號는 二芝堂, 本貫은 晉州, 殷烈公 民瞻의 后裔이다. 天性이 篤孝하여 어머니를 섬김에 至誠으로 하였으며, 어머니가 물고기를 좋아했으므로 날마다 고기를 잡아다가 잡수시게 하였고, 비록 겨울이라도 얼음을 깨고 구멍을 뚫어 반드시 고기를 잡아야만 돌아왔다. 어머니가 別世하자 三年동안 侍墓를 하면서 한번도 집에 온 적이 없었다.

崇禎 癸酉에 旌閭를 命하고 領議政을 贈職하였다. <朝鮮 輿勝覽>

[71] 김종희(金宗熙)<憲宗 10年(1844)~? >

本貫은 金海, 모친이 眼疾로 고생하자 百方으로 치료하였으나 效驗이 없으므로 온천에서 목욕할 것을 원하였다. 그러나 家勢가 빈한하여 그 비용을 마련할 수가 없었다. 그는 溫陽 溫泉까지 백리길을 내왕하면서 溫泉물을 길어다가 眼疾을 고쳤다.

賢淑한 그의 처 金氏도 媳母를 잘 받들고, 남편을 精誠껏 섬겼는데 남편이 우연히 得病하여 위독하므로 대신 죽기를 天神께 기도하였으나 보람없이 세상을 떠났다. 즉시 殉節을 圖謀하였으나 늙은 媳母와 幼兒들이 의탁할 곳이 없음을 생각하고 初志를 굽혀 장례를 치른 후에 媳母를 남편 생존시와 다름없이 섬기어 天命을 다하게 하였다.

死後에는 風雨寒雪을 무릎쓰고 조석으로 省墓를 하였으며, 겨울이면 省墓길에 눈까지 쌓였다. 이웃 사람들이 감동하여 그 길을 孝子路라 이름하였으며, 1929年 瑞山郡守의 表彰狀과 香爐등이 施賞되었다. <瑞山郡誌>

[72] 순 양(順陽)<李朝 ?~? >

李朝時代 私婢身分의 烈女로 新昌縣 사람이었다. 媳母를 정성껏 섬기었고 그 男便이 물에 빠져 죽자 그 뒤를 따라 죽었다. 旌閭이 新昌縣 大東面에 있었다. 지금은 그 자취를 찾을 길이 없다. <輿地圖書(新昌縣)>

[73] 애 절(愛切)<李朝 ?~? >

李朝時代의 孝婦로 溫陽郡 사람이었다. 孝誠이 至極하여 旌閭를 세웠다. 지금은 그 자취를 찾을 길이 없다. <輿地圖書(溫陽郡)>

[74] 하유성(河有成)<李朝 ?~? >

李朝時代의 廣大집안의 孝子로 新昌縣 사람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佛教信者로서 술과 고기, 파, 마늘 등을 먹지 않았는데 有成역시 이런 것을 입에 대지 않았다.

아버지가 病이 들어 오래 苦生하고 있을 때 그는 옷을 벗지 않고 몇달동안 看護를 하였다. 結局 그 아버지가 氣絶하자 칼로 가운데 손가락을 잘라 피를 病者의 입에 흘려 넣어더니 조금은 效力이 있었다. 다시 네째 손가락을 자라 피를 흘려 넣어더니 닳새를 더살고 죽었다. 葬事를 지낸뒤에 하루에 세번씩 아버지의 墓를 찾아 省墓하였다. 비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안가는 날이 없었고 눈물이 떨어져 그 近處의 풀이 말라죽을 정도이었다. 이 事實이 朝廷에 알려져 旌閭가 세워졌고 工曹參判을 追贈하였다. 旌閭는 牙山郡 仙掌面 大興里에 있다. <輿地圖書(新昌縣)>

[75] 정삼신(鄭相臣)<李朝 ?~? >

字는 麟之, 本貫은 溫陽, 史曹參判 抱의 后裔이다. 兩親을 孝道로써 奉養하였고 大便을 맛

보면서 하늘에 祈禱하여 이르지 아니한 곳이 없었다. 儒狀이 軸을 이루었고 天安誌에 실려 있다. <朝鮮 勝覽>

[76] 오명걸(吳命傑)<李朝 ?~? >

李朝時代의 孝子, 遂慶의 아들, 孝女 鄭氏의 孫子로 新昌縣 사람이었다. 그는 어머니의 病患에 손가락을 잘라서 救하였다. 當時 사람들이 말하기를 三世를 至極한 孝行이 한 집안에 빛났다고 하였다. 이 事實이 朝廷에 알려져 旌閭는 牙山郡 新昌面 新達里에 있다. <輿地圖書(新昌縣)>